

# 한국어 교육 현장의 경험적 담론

— 해외 및 국내 한국어 교육계 현실 및 개선방안 —

이상억 \*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견해를 밝히려는 의도보다, 이 분야에 거금 37년간 관여하면서 생긴 경험에 바탕하여 깨달은 점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과 국내 한국어 교육계의 현실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를 성찰해 보고 적잖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려 한다.

필자는 1969년 한국 문교부가 외무부의 협조로 제3세계를 포함한 많은 나라로부터 국비장학생을 받아들이면서 서울대 어학연구소에 한국어과정을 만들 때 한국어교육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국어학 전공 대학원 석사 과정생이던 필자는 강사도 되고 상담역 및 조교요 동년배의 친구도 되는 1인 다역의 **옴버드맨**이었다. 언어 교육 시간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요즘 유행하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많은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교실에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잣불켜기, 콩윷(콩을 2개만 가지면 4쪽으로 만들어) 놀이 등을 했었고 유적답사 안내도 전담했다. [뒤에 이야기할 기회가 적절할지 몰라 미리 지적하자면, 어떤 과정을 이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전임 교수 말고도, 이런 여러 새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조건 헌신을 하는 젊은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말해 두고 싶다.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실제로 좋은 교강사로 되기도 할 것이다.]

당시에 인상에 남는 일들 중 1972년 봄 인도 뉴델리에서 온 인도 미녀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알카 마하드킬’이란 학생 이야기를 참고로 삽입해야겠다. 입학 후 2개월도 안 되어서 내게 찾아온 그녀는, 한국전쟁 때 중립국감시위원회 일원으로 오셨던 아버지의 평소 말씀을 듣고 한국을 동경하다가, 자기도 마침내 유학 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며 그런 내용으로 원고를 써주면 그 대본을 외워서 코리아 헤럴드 주최 외국인 한국어 응변대회에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보통 2년은 배워야 나갈 만하게 된다고 말렸으나 무조건 녹음까지 해 주면 그대로 외우겠다고 했다. 과연 그녀는 한 달 후 대회 날, 매끈하게 내 억양과 강세까지 살려서 정말 앙무새같이 외웠다. 결과는 대통령상이었고 나는 달려드는 인터뷰 기자들을 따돌리고 좋은 이미지만을 남기며 그녀를 황급히 데려 내왔다. 그 당시 인사말 이상 긴 대화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 에피소드에서 필자가 말하려는 바는 학생이 암기력이 좀 있으면 어떤 교수법보다 ‘**좋은 교재/대본을 잘 외우기**’가 꽤 효과적 언어습득법이라는 결론인 것이다. 수업 시간에도 외우기를 시키고 또 숙제로 내고 하는 오래된 방법이 역시 약이 된다는 말이다.

알카는 그 해 가을 또 일단의 학생들과 나를 찾아왔다. 여름에 수해가 나서 수재의연금도 모을 겸 연극 공연을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연극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이들의 열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 유치진의 “춘향전”을 대본으로 쓰려고 보니 웬 그리도 어려운 사자성어(四字成語)들이 많이 들어 있는지, 손수 모두 쉽게 고쳐 써 주어야만 했다. [은퇴 후 필자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우리나라 ‘판소리’ 계열 소설 등 좋은 소재를 두루 찾아 **외국인이 쉽게 쓸 수 있는 연극 대본의 형태로 정리해 놓는** 일이다. 어휘 통제를 적절히 하여 초급, 중급, 고급용으로 구성하면 수업 단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동극 대본들은 수도 적을 뿐더러 외국인 학생이 쓰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여러 나라 학생들에게 대본 일부씩을 읽혀 보면서 캐스팅을 해 나갔다. 결국 17개국에서 온 ‘외국인의 최초 한국어 연극’의 틀을 구성해 놓고 보니, 연기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여 대학 동창생인 배우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연습할 장소며 그 기간 중 식사비 조달, 의상 및 분장, 조명, 무대장치, 무용지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느덧 프로듀서가 되어 있어야

했다. 마침 한국일보 기자가 우리의 선의를 알고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한 뒤 조선호텔에서 볼룸을 무료로 빌려 주겠다는 제안이 왔다. 또 이 행사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는 특별한 의의를 이해한 외무부, 문교부, 문화공보부도 재정적 후원을 꽤 해주었다.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한국어 교육도 사회와 주위 환경에 호응을 받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사범학교 교본에 있을 듯한 구태의연한 방법만으로는 활력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현역 배우 텔런트들까지 와서 참관한 12월 중순 3차례의 공연은 KBS에서 녹화도 되어 1973년 정월 초이튿날 전국에 방송되었다. 약간의 입장료 수익금은 경북 영덕 지역에 수재의연금으로 전달하였다. 그 당시 이 큰 일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자기 모국에서 현재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고, 또는 한국외대에서 스웨덴어, 인도어 등 자기 모국어를 가르치며 한국어에도 능한 교수 등으로 활약하였다. 그래서 **연극 또는 작은 규모의 role play** 들은 **외국어 학습에서 활용해야 할 좋은 방법**이란 확신을 얻었다. 그러나 이런 다국적의 기획은, 필자가 미국에 유학 가서 있던 70년대 중반에, “맹진 사택 경사”가 한번 더 있었다고 전해질 뿐 더 이상 시도된 일이 없다고 알고 있어 다소 실망스럽다.

국어학 전공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과정에서도 언어습득 문제가 개재되어 있으므로 한 마디 하기로 한다. 어학연구소에서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안, 영어 쪽을 가르치던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원들 중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도 있어서 자연 필자와 간간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 영어로 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목표어(target language)에 대해 숫기가 좋게 되도록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없애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단한 행운이었다. 그러던 차에 주변에서 미국 플브라이트 장학금 시험을 쳐보라는 권유가 있었다. 국어학의 이론적 바탕은 일반언어학의 그것과 같이 하고 있으므로 미국으로 가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일은 좋은 생각이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서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더 많이 주목하게 되었다. 자신이 학생 입장이 되어 봄야 선생 역할도 잘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얻었다.

계획대로 잘 되어 73년 미국 일리노이대에 가서 언어학 박사과정 공부를 끝내고, 한국어를 소재로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75-77년간은 미국에서 한국 책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하버드대의 옌칭도서관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어느 곳에서나 **한국어 연구/교육을 잘하기 위해 도서 확충은 기본**이라는 점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다.] 나는 Harvard-Yenching Fellowship을 받아 2년 간 떠나 있다가, 77년 학위를 마치러 일리노이대로 다시 돌아왔다. 그 사이 큰 변화가 일어나 미국 내에서도 처음으로 언어학과 부설 TEFL(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Division이 생긴 것이었다. 이 때가 **언어교육 과정이 전문화된 초창기**로서 요즘 한국에서도 흔해진 상황과는 대조적이었다. 필자도 많은 관심을 언어교육에 가지고 있던 차라, 귀국 직전 이러한 실황을 접한 것은 자연히 큰 도움이 되었다.

78년말 귀한한 필자는 고려대에서 근무하다가 80년 7월에 호주국립대학 교(수도 캔버라 소재)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러 가게 되었다. 거기서 ‘남반구 최초의 한국어 코스’라는 광고로 8명의 학생을 모아 시작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아시아학부 동료 교수였고, 3명은 문선명 교도였다. 한국을 더 잘 알리기 위해 대사관 공보관이 가지고 있던 포스터며 팸플릿을 다 가져다 교정에 붙이거나 돌렸고, 아시아 학부 교수들을 초치하여 조촐하게 한글날 기념 파티도 벌였다. 이 무렵에 작은 물건이나 인적 배경이라도 **현지 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최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아래에 또 시드니대학교에서 경험했던 이 비슷한 경우를 언급하겠다.]

호주의 한국학 강좌는 계속 한 대학에서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88올림픽이 성공한 뒤 8개 대학으로 번져 94-97년간 다시 시드니대학교 초청 한국학 담당 교수로 가 있게 되었다. 96년에는 제3회 환태평양 한국학대회(PACKS)의 조직위원장직을 맡게 되었고, 당시 시드니에 약 20개 한국 지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 경기고 동창인 포철 지사장의 주선으로 BHP, C&A 같은 철광, 석탄 회사로부터 4만불의 거금을 찬조 받는 고마운 호응을 얻었다. 이 액수는 일본학과에서도 이뤄보지 못한 부러워할 수준이었다. 당시 학술진흥재단, 국제교류재단 보조금도 있어 약 200명의 손님들에게 4일간 숙박은 물론 거의 매일 점심 저녁 뷔페를 대접하는 융숭한 학회를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관계 논문도 포함된 회의 결과를 전례 없이 세 가지 책으로 엮어내는 출판비에도 충당했다. 경비를 최대한 공동 혜택이 가도록 써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을 했다. 이런 결과 시드니에서의 한국학은 각광을 받게 되었고 한국어 교육도 더 높은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82년 서울대로 옮긴 뒤 이듬해부터 말레이지아의 동방정책(Look-East Policy)에 의해 서울대 어학연구소로 온 20명 가량의 공학도들에게 필자가 최초로 특별반을 만들어 별도의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 이 과정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의 성분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은 가장 바람직한 조치의 하나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어 교육 초기부터 교포는 따로, 언어권과 문화권이 다른 그룹별로 반편성을 해야 좋다. 한자를 아는 일본, 중국 학생들은 습득속도가 빠르고, 게다가 문법구조까지 서로 흡사한 일본 학생은 월등히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편성을 해야 좋다. 초, 중, 고급 등으로 분류하는 가운데 또 동질성 여부도 교차 고려해야 하는데, 물론 학생수가 꽤 많을 때나 분반이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을 이끌면서 필자는 “외국인을 위한 기초 한국어사전”的 필요성을 절감하여 1995년 “Basic Korean Dictionary”的 출판(한림출판)을 하게 되었다. 한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한영·영한 사전들을 외국인이 써오면서 생기던 잘못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었다. 영한사전을 써서 spring을 찾으면 ‘용수철, 샘, 봄’ 등의 순서로 그냥 뜻풀이 없이 제시되어 있기에, “Spring has come.” (봄이 왔다)를 한국어로 작문해 오라니까 “용수철이 나왔다”식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 사전에서는 spring n. ① (*fountain*) 샘 ② (*season*) 봄 ③ (*wire*) 스프링/용수철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도록 제시하였다. 이 소사전에 어항은 많이 담지 못했어도 빈도수별 중요도 표시와,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문법사항, 숙어, 속담 등 다른 사전에는 없는 부록들도 세심히 마련하여 붙였다. [뒤에 말할 엄청난 국가예산을 쓰는 큰 프로젝트에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이라는 사업이 있으나 어느 세월에 한영·영한판 등 외국어로 번역까지 된 실용적 사전이 나오게 될지 요원한 설정이다.]

말레이지아반은 산업시찰과 한국문화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재정적 지원이

되었기에 요즘도 하듯이 당시에도 경주, 포항, 울산 등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은 87-89년간 3년에 걸쳐 UCLA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받으러 10주간씩 와 있을 때도 시행되었다. 87년초 당시 UCLA 응용언어학과장 Campbell 교수의 이론적 자문에 따라, “캐나다 오타와대학에서 영어를 쓰는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불어로 강의한 결과, 심리학 내용(content)과 불어(language)를 동시에 배우더라는 실험, 즉 어떤 교과 내용을 외국어로 강의하면 그 교과 내용을 배우면서 동시에 외국어도 배우게 된다.”라는 원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어 초/중급뿐 아니라 모든 문화적 내용(문학, 역사, 철학, 종교, 미술, 음악, 사회 등)으로 교과내용을 짜놓아 위의 원리대로 교육하였다. 이 당시 상세한 “서울대-UCLA 한국어·문화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소개”는 이중언어학회지 3호, pp. 109-193(1987, 탑출판사)에 실려 있다.

그 해 3월말-6월초에 걸쳐 각 분야마다 전공 교수님들을 동원하여 첫 해 교육을 잘 실시하였는데, 7월부터 서울대 교무부처장을 맡게 되어 바빠진 그 뒤 2년 동안은 첫 해 모델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체제로 운영하였다. 다만 바뀐 부분은, 1·2년 차에는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는 체재를 썼으나, 3년 차에는 어휘통제(vocabulary control)의 훈련이 없는 전공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쉽게 써 훈련된 조교들에게 강의하도록 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훨씬 좋았다. ‘줄목문 토기’를 ‘빗살 무늬 토기’로 바꿔 쓰는 식으로 문화 교재를 개편했다. 이 연계교육에서는 서울대 학생들 중 민박제공 희망자들을 20명 모집해 등교부터 짹궁 체제(buddy system)로 하여 하루 종일 많이 접촉하며 한국이라는 바닷물에 빠지듯 몰입(immersion) 상태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였다. 민박 희망자가 모자라 하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영어를 못하는 주인 할머니를 고르면 대개 시간도 많이 있어 좋다는 기준으로 집을 고르도록 했다.

학생을 3년이나 현지재교육(in-country retraining)을 시키다 보니 민박 찾기도 어렵고 체한 기간 중 의료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험도 필요하여 경제적 방식으로 바꿔 보기로 했다. 즉 학생을 이동시키지 않고 다양한 강의를 공급하는 체제였다. 당시에 막 보편화되기 시작한 ISDN 및 위성통신 전

화선을 이용한 영상중계를 하기 위하여 양측 학교는 동시에 상호 교류되는 (compatible) 기자재를 구입 실용하였다. 새 방식의 도입을 Tele-link 교육 프로그램이라 하여 전과 비슷한 내용뿐 아니라, 양 교간의 관심 있는 부서끼리 여러 전공에 걸쳐 화상회의를 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하였다. 이 link는 테평양을 건너는 최초의 원격연결(tele-link) 화상강의로 UCLA에서 중국과 시도하다 그곳 기술 수준이 안 되어서 먼저 서울대와 90-94년간 실시한 것이다.

그 뒤 필자는 94-97년간 시드니대학 초청 교수로 가 있게 되었다고 말했었는데, 이미 호주의 그리피스(Griffith)대학도 한국학 육성에 열심이어서 위의 Tele-link System의 일원으로 90년대 전반기에 필자의 주도로 교류활동을 하였다. 그 때는 지금처럼 값싼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전화 사용료를 상당히 지불하게 되어 KT에서 지원비를 받기도 하는 시범사업처럼 수행했다. 요즘은 남북 가족 상봉 도구로도 쓰이는 그 첨단적 방식을 (한국어) 교육에 썼던 통신의 역사와 교육사에 남을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것이다. 이 방식은 접촉과 몰입(immersion)을 할 수는 없지만 각 학생의 경비와 위험을 줄이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었다.

97년 귀국 후 서울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라는 특별 필수과목을 만들어 유학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논문제출 자격고사 대체과목'으로 수강도록 했다. 1회적 고사만 보고 끝내는 것보다 한 학기 강의를 택하는 학생들이 많아 매 학기 30명 가량이 수강하는데, 필자가 2003년 독일과 일본에 연 구교수로 나갔던 1년간을 빼고는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한 학기 14주 강의 속에서 모든 한국문화 사항을 다 훑을 수가 없으므로 UCLA 때와 비슷한 내용들을 웹사이트에 올려 공부의 부담을 교실 밖으로 일부 옮겨서 소화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일정한 길이의 과목 내용을 읽고 문제를 답하는 웹사이트 교육은 논문제출을 앞 둔, 약간 고급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꽤 유효한 자습 방법이다. 물론 면대면(face-to-face) 교실 강의를 하는 절반의 수업시간 중에는 말하기와 듣기를 집중적으로 돌봐준다. 말하기를 시켜 보기 위해서는 자기 소개, 이력서 쓰기를 하거나, 일본학생들은 서대문 형무소, 중국학생들은 전쟁기념관 같은 곳을 방문하여 그 소감을 써

오게 하기도 한다. 동료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동안 전체 학생이 같이 듣도록 발음교정도 해 주고, 한국어로 청중 앞에서 말하는 경험도 쌓는다. 듣는 학생들도 이해하는 힘을 기르도록 복돋워 주고 그 결과를 점검하기도 한다.

요즘은 **특설강의실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영화**를 같이 보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도록 하기도 했다. 2005년 2학기에는 서울대에서 영어 강좌를 확대 실시하는 일환으로 “The Korean Language” 강의를 하기로 했다. 이 실황은 홍콩 City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동시 수강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를 하기로 했다. 홍콩은 호주의 경우와 함께 실시간(real time) 화상강의를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다. 미국의 경우 서해안 지역마저도 서울이 아침 9시일 때 이미 오후 4시가 되어 1시간밖에 접속할 수 없는 날이 많았다. 캐나다 뱅쿠버나 유럽까지도 실시간 접속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과거에 시도해 보았으나 파트너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이상의 회고적 경험담과 그 중간중간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지적으로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사실 이 글에서 부각하고 싶었던 주제는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과 국내 한국어 교육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었다. 2001년 6월 말 일주일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교육원에 국립국어원 파견 교수로 특강을 하러 갔었다. 150명에 이르는 현지 교강사들이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열심히 학습하였다. 건물도 크고 시설도 제법 갖춰졌지만 그 많은 인원을 수시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복사기에 드는 용지 값만 해도 적지 않을 것이 확실했다.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을 많이 다녀 보면 대체로 여유가 있는 곳들은 적고 항상 경상 운영비를 더 마련해야 할 곳들이 많아 보였다.** 이것은 더 예를 들지 않아도 예나 이제나 뻔한 사정이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각 대학 및 기관들이 관여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계의 현황은 어떠한가? 전보다 이 분야가 수익성을 갖추고 좀 인기를 얻는다 싶으니까, 한번도 **외국인을 앞에 놓고 가르쳐 보지도**

않은 급조된 전문가들이 갑자기 많이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어교육을 영어학자도 아닌 영문학자가, 그것도 전문가가 없지도 않은 서울대에서, 보직에 연연하여 끌어안고 관장하려는 만용을 부려 왔다. 또 중구난방으로 여러 대학과 기관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교강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대학원 전공과정을 만드는가 하면, 문화관광부에 로비를 하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나 별씨 10년 가까이 정부예산을 과잉 지출하도록 고착화시키고 있다. 어떤 교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필자도 강의를 해 준 일이 있었는데 수료 이후 일자리를 주선해 달라는 수강생이 있었다. 실제로 웬만한 해외 한국어 강좌에서는 유경험자를 원하므로 이런 수료생이 취업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지금 각 양성 프로그램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수료생들이 조금이라도 관련 현장에서 가르쳐 볼 수 있을 기회가 계속 열려 있을지는 다분히 회의적이다.

가령 필자가 독일의 Humboldt Fellowship을 받아 자주 장기 체재하면서 본 바에 따르면, 1985년 뮌헨대에 갔을 때 그 직전에 한국어강좌가 없어졌었고, 2003년 베를린에 있을 무렵 훔볼트대의 전통 있는 한국학 강좌들이 다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추세는 지금도 튀빙겐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시키는 일은 그 만큼 어렵고 수급관계를 절제하여 기획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더구나 해외 각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워 그것을 활용하려는 학생들도 취업의 길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 필자에게서 한국어를 배운 69년도의 첫 반 학생들은 대개 유럽, 일본 등지의 유명한 대학 교수로 자리를 잡아 지금까지도 정년 가까이 재직해 오고 있지만, 그 뒤 후배들은 그런 기회를 잡기가 점점 어려워졌던 것이다. 그만큼 해외 한국어/한국학 시장은 좁은데, 국내 교강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과장된 유치 광고들을 일삼고 있는 현실은 기만적인 것이다.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 한국학 시장의 기복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은 소위 IMF 시대를 통해 입증되기도 했으니, 경제를 일으키도록 돋는 일은 한국학도에게도 중요하다. 96년에 PACKS의 조직위원장직을 맡았을 때도 호주가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으로 보아 2위의 고객이라는 점을 항상 강조하며 그 위상에 걸맞은 한국학 대접을 해 주도록 ‘제값 받기’를 요청하였다. 이런

노력은 가시적 효과가 즉각적으로 없더라도 한국학 보급을 사명으로 띠고 나가 싸우는 전사 같은 입장에서 애처롭게 고군분투하는 몸짓이었다. 그런데 당시 서울대 기획실장이라는 정치학 교수가 시드니대를 방문하여 자기간에는 좀 cool한 지성인인 척하며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한국인은 이러저러하게 나쁜 점이 있다는 부정적 소리나 하고 가니 몇 년씩 애쓰고 있던 동료 교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는 경솔한 언행이 아니겠는가?

한편 국내에서 아마추어들이 어문정책을 좌우하고 그 정책을 보좌 또는 주도하는 교수들이 로비로 정부예산 확보를 하여 자기 주변의 연구원들에게 꼭 하지 않아도 될 연구계획과 모임을 수없이 만들어 돈 잔치를 시키는 이런 비학자적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랄한 비판은 바로 그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자에게도 분담되었기에 내용을 잘 알고 하는 얘기다. 몇 년씩 교재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라는 명목으로 수억의 예산을 쓰면서도 교재 자체는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 문화체육부 시절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4개월이 짧은 시간을 받은 것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다가, 9월에야 연말까지 작업기간을 주었던 출속 행정 때문이었다 만에 “Korean Through English”라는 교재를 초·중·고급 3권이나 작성해 내면서도 예산은 10분의 1도 안 썼던 것과 대조해 보면 정말 최근 대형 프로젝트는 폭리적인 행태인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위 영문판을 1990년 내놓은 뒤 6년에 걸쳐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로 7개 국어에 걸쳐 영문판을 그대로 번역한 원고를 만들어 연차적으로 (불, 독어판만 빼고) 한림출판사에서 출판했으나, 각 번역출판에 1천만원씩의 예산만 사용한 것이었다.

이 교재 종서는 내용상 불만스런 부분도 있지만, 교보문고에서 계속 제일 많이 찾는 책이라 한다. 3e 즉 쉽고(easy) 교육적이며(educational) 재미있게 (entertaining) 쓰려 했던 의도가 어느 정도 단시일의 작업 속에서도 반영된 덕분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호주에 3년간 갔다 오니, 한림출판사에서 Y대학 팀이 문화관광부 주문으로 내 책을 개편해 원고를 보냈는데 새 책에 그대로 반영을 해도 좋을지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경악할 정도의 개악이었으나 비용은 몇 백만원을 타 갔다는 것이었다. 문화적

내용을 삽입하라는 주문에 맞춘다고 ‘사상의학’을 초반에 도입한다든가, 기껏 고쳐 놓은 내용이 대화자를 A, B 대신 John, Mary로 바꿔 놓은 것이었다. 초급반에서 설명으로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키면 그 이름들에 신경을 써서, 정작 대화를 외우는 데 지장이 있는 현상을 보아 왔다. 필자가 1권 대화자들을 A, B 식으로 단순화해 놓은 것은 그런 배려였는데 이런 의도를 이해하기에는 그 팀의 수준이 문제였다. 그래도 필자는 문화관광부가 예산을 헛썼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그 해 여름방학을 다 들여 무료로 모든 원고를 재정리해 주었다. 헛된 일은 한 팀은 돈만 챙겨 가고, 진짜 일을 한 사람은 땀만 흘린 경우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범용적인 교재를 한국이나 어떤 해외기관에서 주도하여 편찬할 경우 십중팔구 그 통일된 교재를 각처에서 채택해 쓰기보다는 각국 해외 사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현실이다. 6·70년대 한국어 교육 초기에 명교재로 널리 쓰였던 “명도원 한국어 교재” 중에 ‘북주’라는 천주교 용어가 나와 메리놀 교단에서 만든 교재로서 한계를 드러냈지만 당시 대체할 다른 더 좋은 교재가 없었다. 그러나 그 뒤 해외 각처에서는 위 ‘북주’ 예와 비슷하게 그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쓰는 용어를 꼭 섞어 넣어야 비로소 자기 특색을 살린 교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 경향은 지역이기주의와도 상승 작용을 하여,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는 동부와 서부의 한글학교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든 교재만 쓰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 이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질적으로 좋은 교재를 우선 채택하는 양식을 교강사들이 발휘하여야 해결될 것이다.

1993년경부터 시작하여 미국 중심만으로 구성된 KLEAR Textbooks in Korean Language라는 거액의 KF 프로젝트가 꽤 오래 걸려 Cho, Y., H. Lee, H. Sohn, S. Sohn and C. Schulz (2000)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 2. (2001) Integrated Korean: Intermediate 1 & 2. University of Hawaii Press 등을 출간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Adrian Buzo & Gi-Hyun Shin (1993) Learning Korean: New Directions 1 & 2. Published in association with the National Korean Studies Centre, Australia에서 이미 유사한 특징을 보였던 점들을 공유하고 있다. 둘 다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learning Korean in a non-Korean educational environment”로 목표를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KLEAR는 같은 영어권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호주 교과서의 장점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채, 자기 지역만의 교재 집필을 고집하여 중복되는 노력과 예산을 소모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해외 교육 현장에서는 복사비가 부족해 종이를 아껴 쓰고 있는데, 세계화다 뭐다 하며 해외 각지로 현지조사 다닌다면 여행을 즐기다가 별 내용도 없는 연구보고서만 한 박스씩 찍어 내놓는 프로젝트는 왜 또 계속하는가? 그 동안 한국어 교육관계 학회 행사들이 대부분 각지의 교육현황 보고라는식의 가장 손쉽게 예산을 쓰는 형식으로 꾸며져 온 현실은 실로 개탄하고도 남을 일이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일년에도 몇 번씩 초청되어 들어오는 해외 한국학 교수들은 본연의 교육보다 이런 기회를 찾고 인맥 대기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문화관광부 계통 국어연구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거 정문연), 한글학회, 각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리 되는 것이다. 이들 중 몇몇 프로젝트는 많은 정부 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처럼 한번 시작한 거대한 사업을 갑자기 그만 두게 되면 부서의 차후 예산 배정이나 평가에서 차질을 크게 빚을 것이므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뒤늦게 깨닫는다 해도 한번 물린 로비나 잘못된 아이디어의 후유증을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은 우리의 혈세로 조성한 정부 예산을 쓰는 모든 체재와 프로젝트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양심상의 과제인 것이다. (2005. 8. 20)

### 참고논저

〈이상억 저작: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재와 참고문헌'〉

- (1974, 표준), 한국어 II (문법 대역 편), (일어판), 동경: 고려서림.
- (1987), 서울대-UCLA 한국어·문화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소개, 이중언어학회지 3 호, pp. 109-193, 서울: 탑출판사.
- (1992)(영어권), 한국어 I, II, III, 문화부, 서울.
- (1993), 한국어 I, II, III (중문본), 서울: 문화체육부.
- (1994), 한국어 I, II, III (일어판), 서울: 문화체육부/한림출판사.
- (1995), 한국어 I, II, III (노어판), 서울: 문화체육부/한림출판사.
- (1996), 외국인을 위한 기초 한국어 사전 (Korean-English/English-Korean: Basic Korean Dictionary), Seoul: Hollym.
- (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익섭, 채완과 공저. 영어, 일어, 독일어, 터키어, 러시아어로 번역됨.〉
- (1997\*), 한국어 I, II, III (불어판), 서울: 문화관광부. [\*일반 출판사에서 공간되지는 않았음.]
- (1998\*), 한국어 I, II, III (독어판), 서울: 문화관광부.
- (1998),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서울: 한국방송대 출판부. 〈남기심, 홍재성 외(10인)과 공저.〉
- (1998), Korean Through English (Revised Edition in 1998) Book I, II, III, Seoul: Hollym. 〈한재영, 윤희원, 한미선과 공저〉
- (1998), 서울의 한옥: 홍문석골 이벽동댁, 남산골 한옥마을 도편수 이승업가, 서울: 한림출판사.